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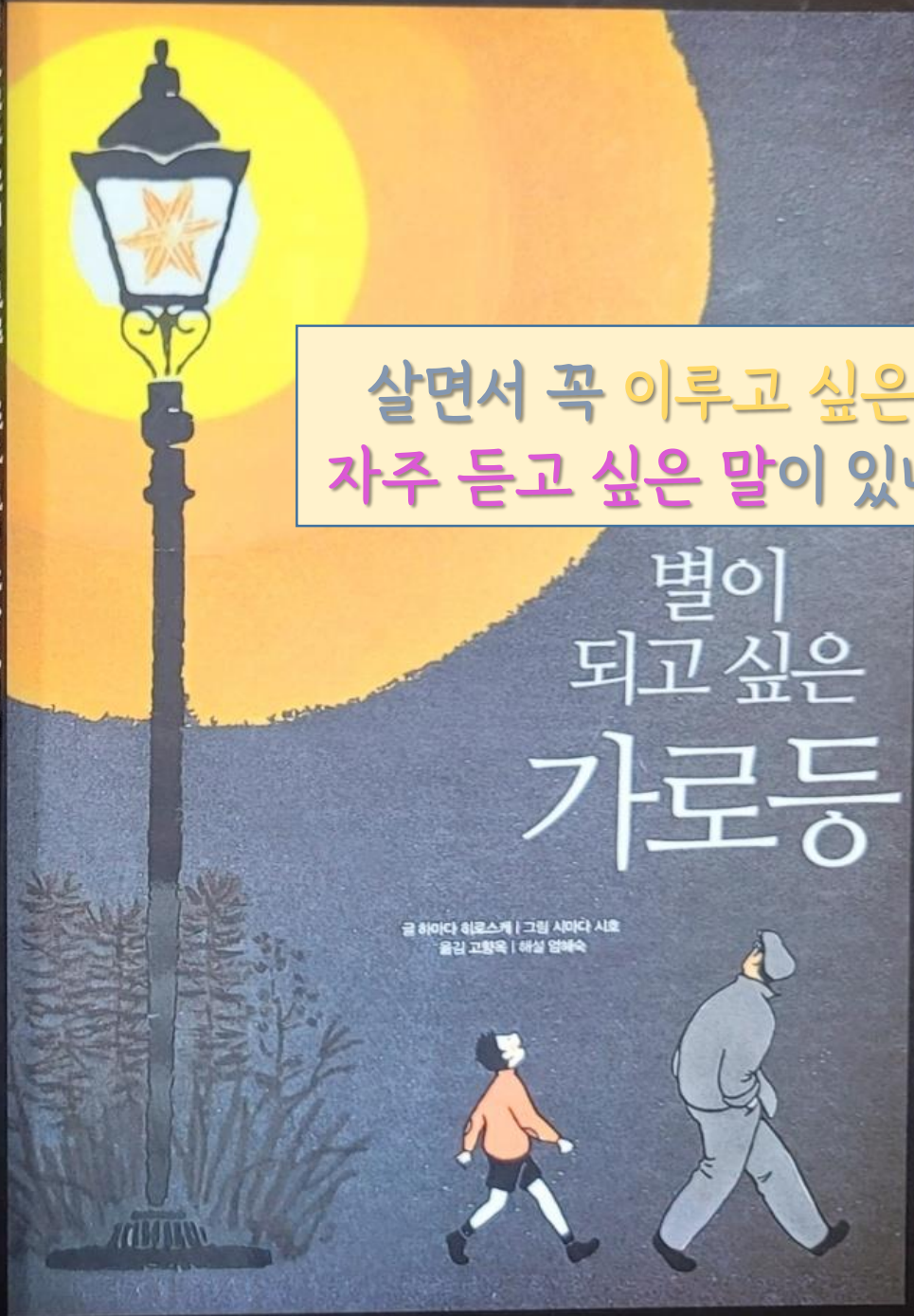
는 듯했습니다.

습니다.

다.



아름다운 평화탄 하급 그림책 -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자주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글 하이다 히로스케 | 그림 시마다 시호
옮김 고창욱 | 해설 엄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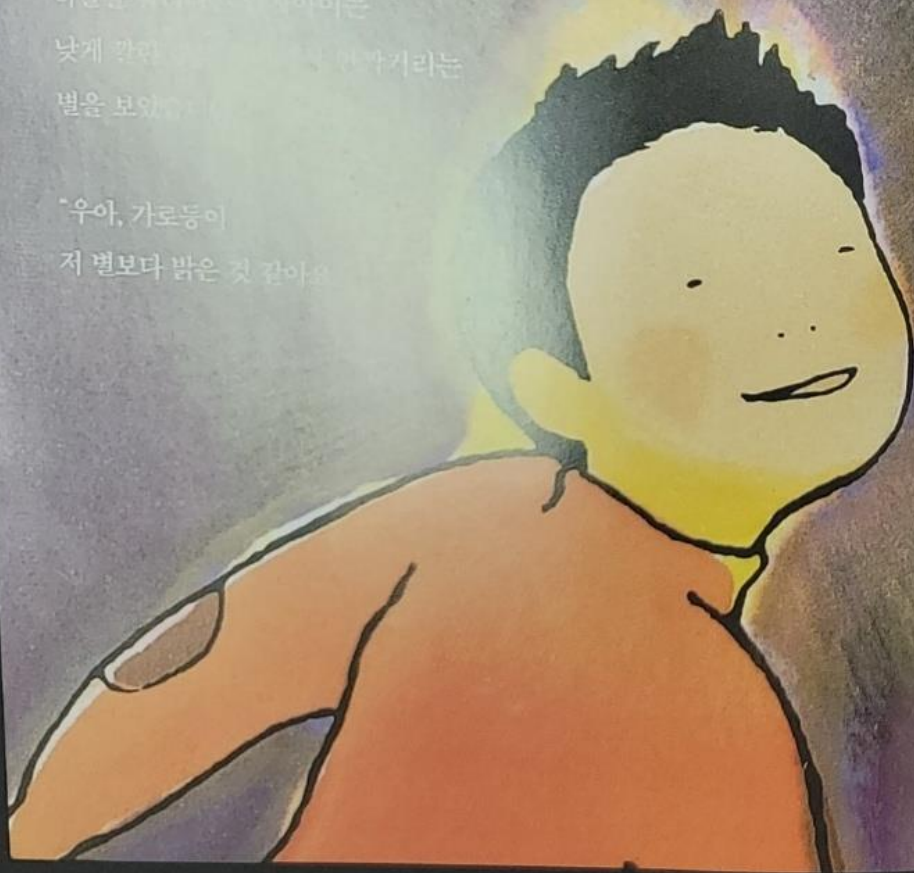
남자아이가 가로등 옆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밝아요.”

“그렇지? 이 가로등이 없으면 이 길을 다닐 수 없단다.
이런 밤중에는 특히 더 그렇지.”

하늘을 올려다본 남자아이는
낮게 깔린 구름과 한가거리의
별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우아, 가로등이
저 별보다 밝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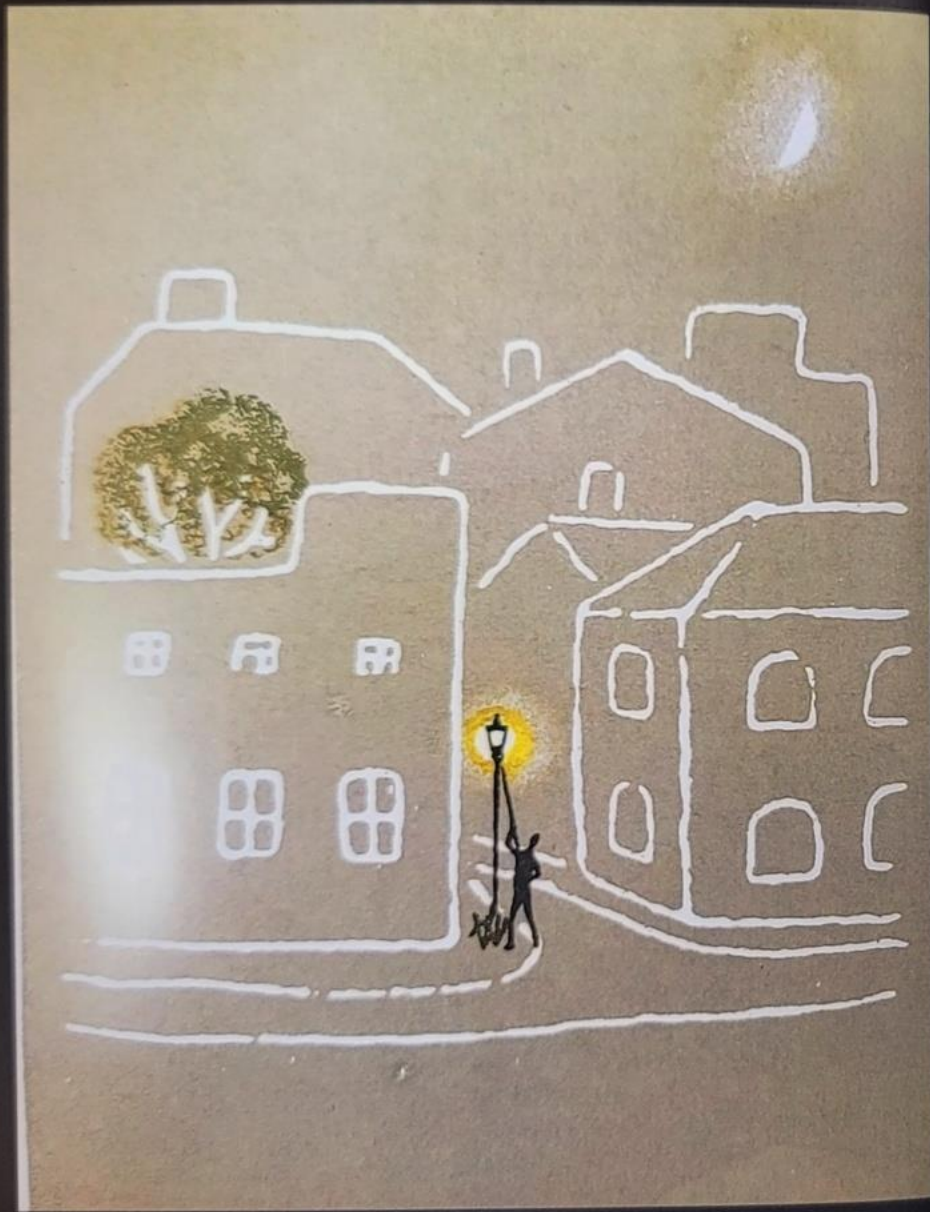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누구 한 명이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라면 내가 슬플 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거야.'
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을 읽고 나도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있어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가로등은 별이 되지 않았지만 빛나는 별처럼 캄캄한 밤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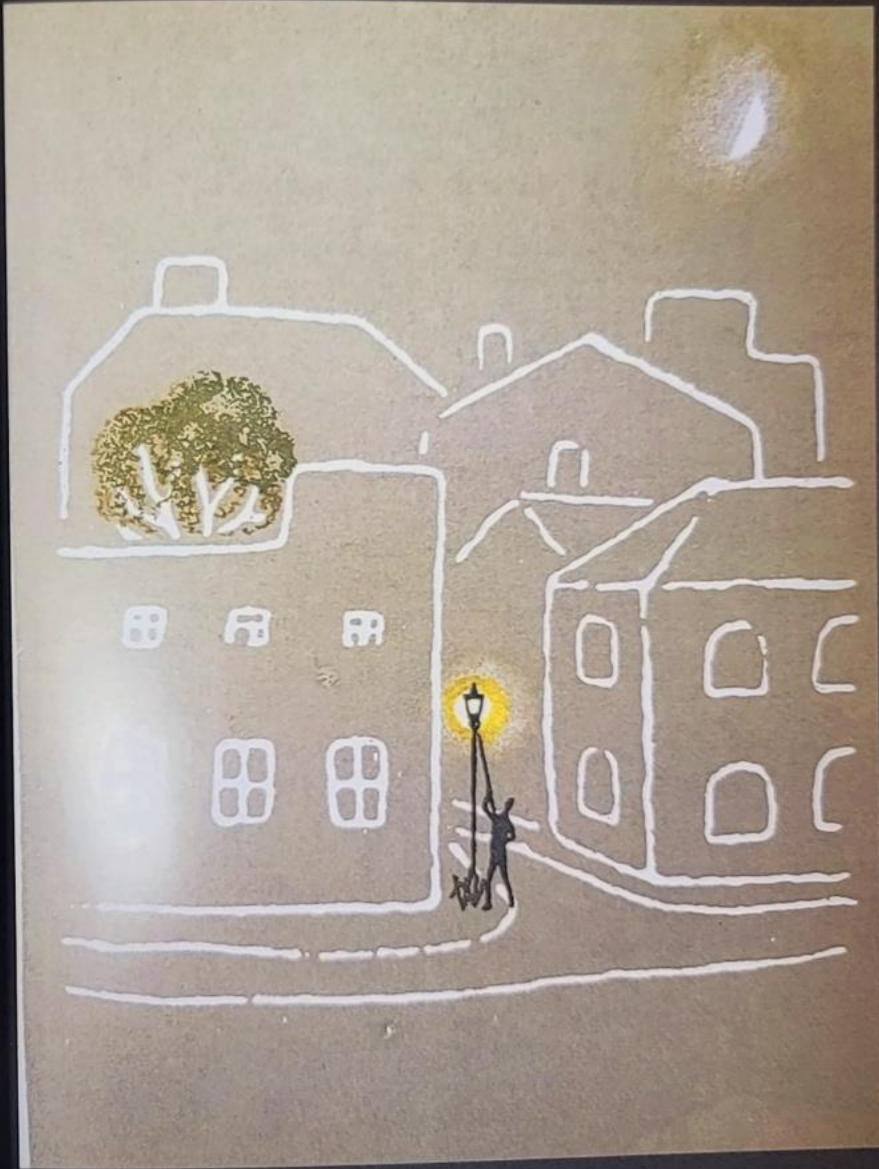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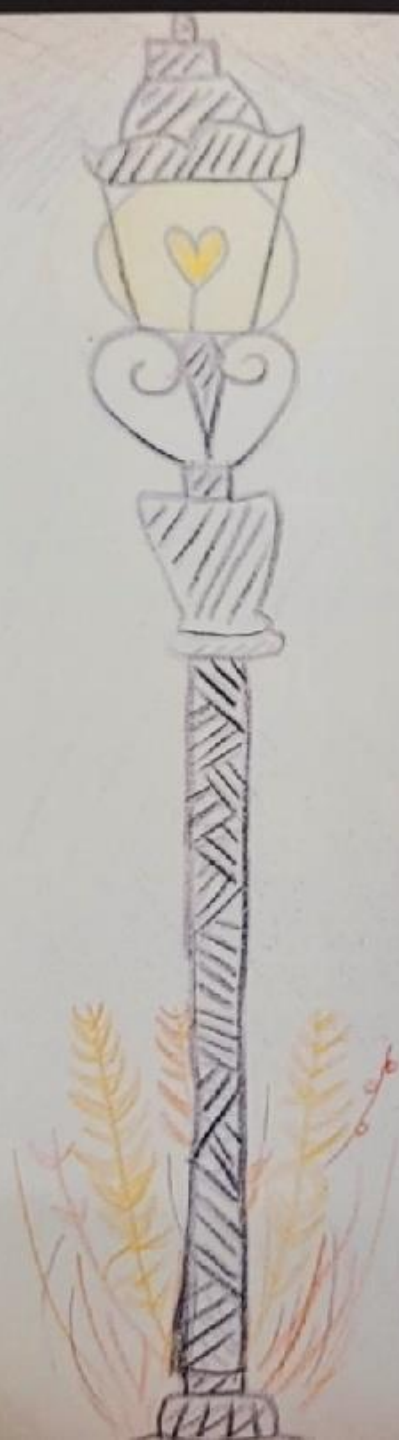
가로등이 별처럼 빛나고 싶어서 별이 되고 싶었다.
가로등이 낮에는 별이 되지 못하는 못하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로등의 생각이 풍덩이와 나방의 생각과 달라서
가로등이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풍덩이와
나방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아니 말투만이라도 좋게 하면 되는데 말투가 비웃
는 것 같아서 가로등이 상처입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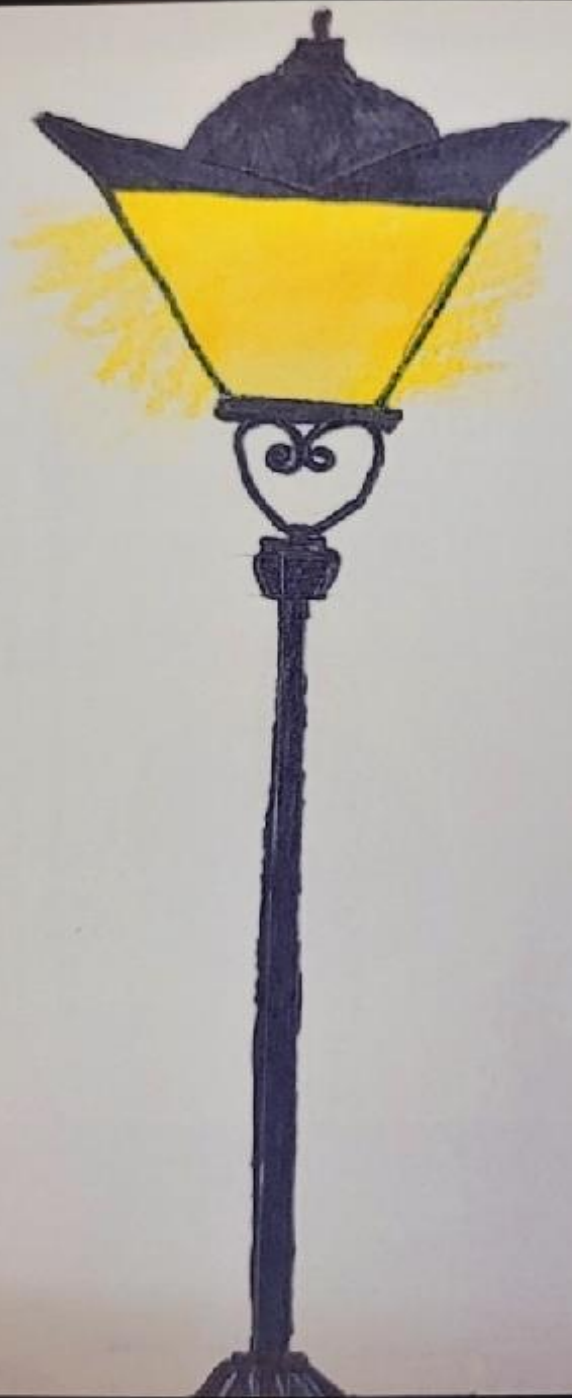
그런데 한 아이가 아빠에게
"가로등이 별보다 빛나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했을 때 완전 감동이었다.





가로등이 별이 되고 싶어한 이유는 별처럼 빛나
싶어서, 가로등은 정말 별이 될 수는 없지만 사실
밤하늘 대신 길거리를 비추는 또 다른 별이 되어
있었다. 풍뎅이와 나방이 부정적인 말로
가로등을 속상하게 만들었지만 아이의 한마디가
위로가 됐듯이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이룰 것이다. 누군가를 위로
하고 받는 감사인사는 별과 가로등처럼 눈부시게
빛나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가로등

풍덩이와 나방이 상처 주는 말을 했지.
하지만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나는 별보다 밝다고 했어.

나는 빛이 나는 가로등!



나는 가로등.

나는 별처럼 빛나고 싶어. 사람들이 보면 힘이 나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 그런데 풍덩이랑 나방이 나한테 한 말이 우울했어. 왜냐하면 너도 환하다고 한번쯤은 말해줄 수 있는데, 말을 안해줘서 속상했어.

나는 풍덩이랑 나방한테
"너는 별같이 빛이 난다, 꼭 아침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이미 어떤 아이가 별 같다고 말해줬으니까.

나는 정말 기뻐.
평생의 꿈을 이루었잖아.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살면서 정말 멋져라고 사람들에게 듣는거야.
상상만해도 웃음이 나와.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고 막말을 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다.

나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볼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넌 똑똑해.



별처럼 빛나는 재능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길을 밝혀준다는 뜻이 멋있었고,
누구나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준다는
뜻이 힘이 되는 것 같았다.

가로등도 꿈을 크게 가지고,
꿈을 늙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고
꿈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자책하고 원망해도 꿈은 이뤄지지 않고,
꿈을 버렸을 때
비로소
밝게 빛나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가로등은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별처럼 아름답고 싶어서.

그래도 밤에는 나름 별처럼 빛나 행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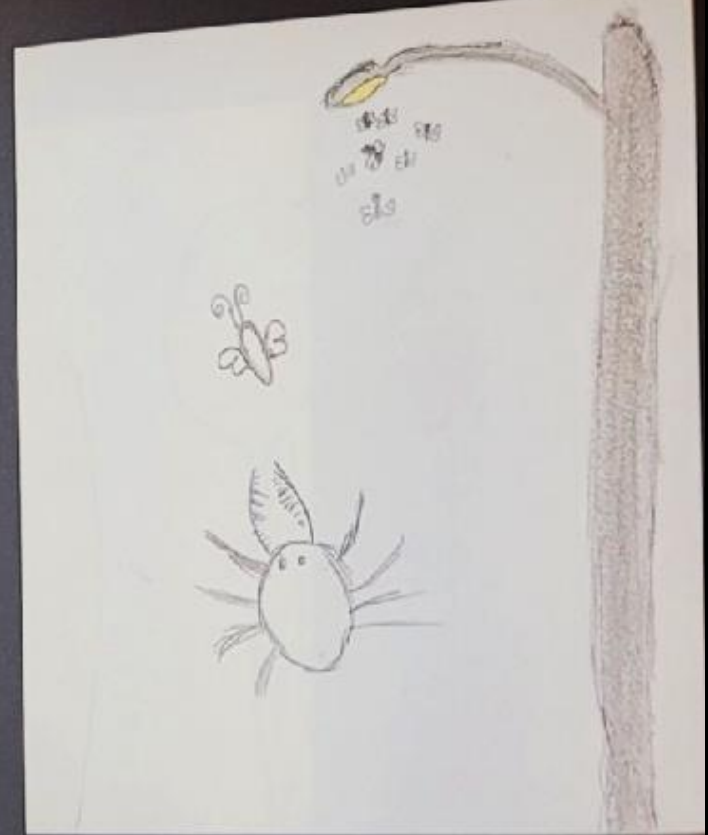
풍덩이와 나방의 말을 듣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이의 "빛난다" 라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나도 " 빛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노력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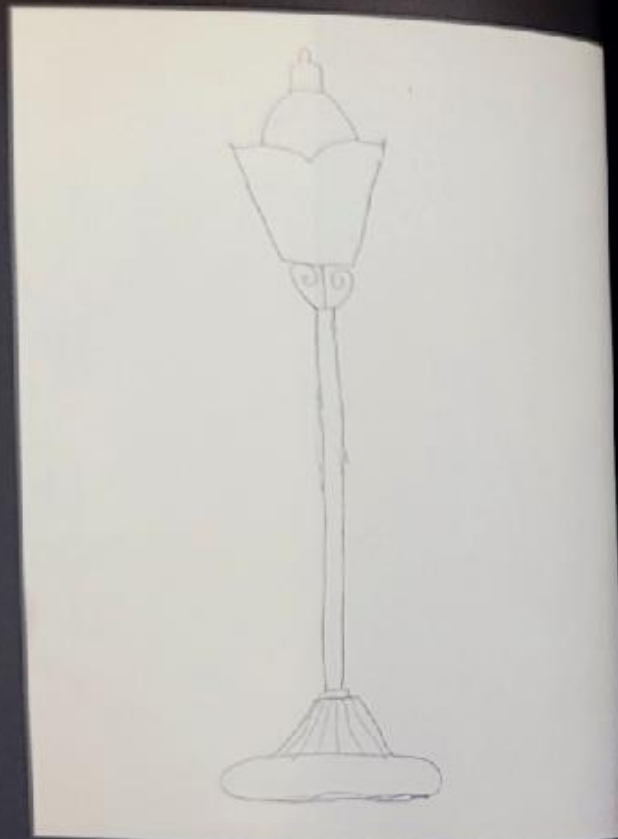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의 말에 어이없어한 곤충들이 나
쁘고,
가로등이 진짜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가로등은 풍덩이하고 나방한테 들은 말,
너는 별이 안될거야라는 말에 상처받았다.
나도 상처받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풍덩이와 나방이 나쁜 말을 해서 슬펐지만 아이가 별보다 환하게 빛이 난다고 말해줘서 기뻐다.

내가 풍덩이와 나방이었으면
"너는 별이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너도 밝아."라고 말했을 거다.



이 책을 읽고 풍덩이와 나방이 한 말이 기분이 나쁘게 들렸다.

아이가 좋은 말을 해주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풍덩이랑 나방처럼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풍덩이나 낙방이라면 가로등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나요?

너는 별처럼
빛나고 있어!

너는 이미 길거리를
비추는 별이고,
무엇보다 반짝거려!

밤에는 너도
하나의 별처럼
반짝이고
정말 아름다워!

가로등아,
너는 별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 세상을 비추는
또다른 별이 될거야.

너무 빛이 난다.
꼭 아침같아!

너는 밤을 밝혀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땅에 있는 별이야.

살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괜찮아,
너는 최고야!
무리하지 마.

같이 놀자.

사랑해.
힘내!

고마워.
네가 있어서
위로가 돼.

너는 이미 최고야
잘 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잘 하고 있어